



뉴저지 새언약교회 신자들이 2월 둘째 주일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회개하며 위기극복을 간구 하나이다”

뉴저지새언약교회, 매일 두 차례씩 코로나19 퇴치 기도

뉴저지 새언약교회(담임 김종국 목사)는 4월 26일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하고, 온 교우들이 매

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다. 새언약교회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통제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니스웨 왕이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회개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옆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자만했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했다. 이 기도문은 “매일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불이 꺼져 있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인하여 교회가는 생각과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새언약교회는 이 기도문에서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 **기도문 전문 아래 별함**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오정선미)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일선 학교 교사들을 돕기 위해 NAKS 온라인 수업 자료팀을 꾸렸다. 사진은 온라인 수업자료팀 화상회의 장면. (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바로 이런 수업자료가 필요했어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온라인 수업자료실 오픈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오정선미)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일선 학교 교사들을 돕기 위해 NAKS 온라인 수업 자료팀을 꾸렸다. 자료팀은 이미 지난해 ‘NAKS 온라인 수업 가이드북’을 만들어 온라인 수업을 위한 Zoom, Google Classroom 사용법 등을 일선학교에 전달했으며 이번에는 실질적인 수업자료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PPT로 제작하고 있다.

NAKS는 “이 자료들은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21세기형 교실 운영에 큰 도움을 주는 자료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KS는 “현재 미국 내 한국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전 과정(1에서 6까지)에 걸친 수업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단어 공부 학습사이트인 퀴즐렛(Quizlet)에 각 과에 나오는 단

어들을 모두 만들어서 올려두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다시 만들 필요없이 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KS는 “‘위기는 기회와 같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엔 갑작스럽게 시작된 온라인 교육이 21세기형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KS는 “미 전국의 한국학교 교사들은 샘플로 올린 자료들을 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원했던 자료다.’ ‘정말 도움이 된다.’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3시간은 줄어든 것 같다.’고 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보내준 격려의 말에 힘입어 비록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서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자료를 만 들고 있다.

매주 한 단원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6월 말까지 모든 과정의 수업자료가 NAKS 웹에 탑재될 예정이다.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NAKS 온라인 수업 자료실에서 바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KS 온라인 수업 자료실 주소는

<https://www.naks.org/jml/naks-online-classes-menu> 이다.



“...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니스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하나님께 옆드려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간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옆드리게 하옵소서...” 그림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스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그림 출처 = ©Getty Image)

“자만 · 안일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언약교회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극복을 위한 기도문

[* 편집자 주(註)]뉴저지 새언약교회(담임 김종국 목사)는 4월 26일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하고, 온 교우들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온라인 예배에서 강윤경 권사가 읽은 새언약교회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극복을 위한 기도문’ 전문이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뉴욕, 뉴저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기타 모든 피해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유해 주시고,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통제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니스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하나님께 옆드려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간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옆드리게 하옵소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은혜를 많이도 받았고 축복도 넘치도록 받았으나 우리는 너무 자만했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로렐 나무 아래 쓰

러진 엘리야를 아무만지사 떡과 물을 주시어 새 힘주시니 하나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을 아무만지시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갈 힘과 용기와 새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이나 노출된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회복되고 병균을 이기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체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을 지키고 최대한 감염 되지 않게 노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치유하기 위해 너무나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감염 되거나 2차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백신도 속히 개발되고 방역과 치료에 지혜와 물질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어려움이 없이 잘 해결되도록 모두가 서로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만큼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서로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와 의심증상자들을 기도로, 마음으로 기타 실질적으로 돕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전염병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진양/유영은 목사님, 원성우/원유선 선교사님, 김영민 목사님, 윤복례 권사님, 이성희권사님, 이오남 권사님, 배금과 권사님, 송용백/노정자 권사님, 성나구 집사님을 위시하여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모든 어려움에서 건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함께 하셔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도록, 생업이 큰 피해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식당엔 일회용 조미료 사용 교회엔 성가대 중단, 독창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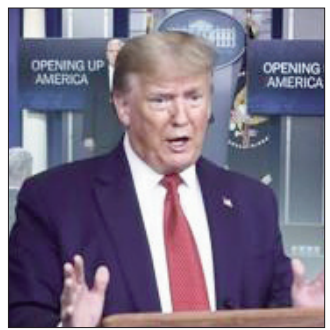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침을 일주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코로나19 발병 완화 추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담아 발표한 3단계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 가이드라인에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 특정 업무현장, 예배 시설, 식당, 대중교통의 단계별 정상화를 허용하기 위한 확대된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주 말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원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은 첫 가이드라인이 대당별로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보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한 것으로, 특히 교회 등 예배시설과 식당 운영에 관한 내용이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WP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예배시설의 경우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기도서와 성가집, 다른 예배 자료의 공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고정된 현금함 사용이나 우편, 전자 결제를 통한 헌금을 검토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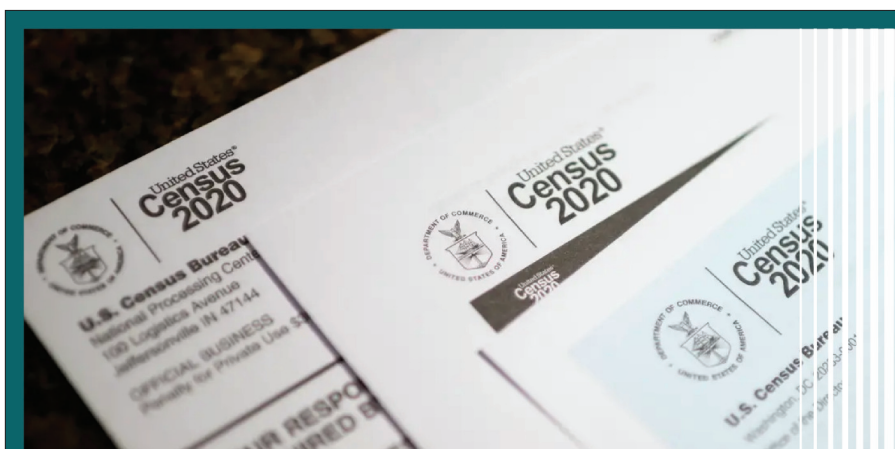
또 예배 중 성가대 운영이나

음악 합주를 중단하고 독주자를 두거나 성가대 인원을 제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인 6피트(약 180cm)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 사항으로 들었다.

식당과 조식의 경우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영업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더라도 취약 종업원들이 재고 관리 등 고객과 접촉하지 않는 업무를 맡고, 계산원을 위해 칸막이를 두는 한편 매일 발열체크 등 건강 검사를 할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고객의 테이블에 제공하는 메뉴와 조미료는 일회용을 사용하고, 뷔페와 샐러드바 제공 등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WP는 백악관이 확대 지침을 검토하는 가운데 예배시설과 식당을 위한 지침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자가 속출하는 유행 포장 및 처리 공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서 각 가구에 인구조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파란색 봉투의 첫 번째 통지서에는 인구조사 참여 번호(ID 번호)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않고 참여 번호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선 온라인과 전화로 인구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인구조사국에서 보낼 설문지가 포함된 통지서를 받고 우편으로 응답지를 보내도 됩니다. 온라인과 전화는 한국어어를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연방 정부에 각 주에 배분하는 복지 기금이 제대로 확보됩니다. 의료, 교육, 도로, 대중교통, 노인과 아동 복지에 쓰일 소중한 재원입니다. 여러분과 커뮤니티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해 인구조사에 꼭 참여하세요!